

SKT-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후원 파트너십 계약 체결

대한민국 e스포츠 위상 전 세계 알린다

**- SKT, 향후 3년간 한국e스포츠협회(KeSPA)의 공식 후원 파트너로 협력**

**-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된 e스포츠 국가대표… SKT 후원으로 최고 경기력 기대**

**- 메타버스 · AR/VR 등 ICT 접목한 차세대 e스포츠 활성화로 새로운 경험 제공**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SKT - 한국e스포츠협회 공동보도자료 입니다** |

**[2022. 03. 31]**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과 한국e스포츠협회(KeSPA, 회장 김영만)는 국내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와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공식 후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2004년 프로게임단 T1을 창단하고 2005년부터 8년간 KeSPA 협회장사를 역임하는 등 국내 e스포츠 발전에 기여 해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팀 지원은 물론 VR/AR 게임의 e스포츠화 등 차세대 국내 e스포츠 발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는 남은 기간 SKT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시범 종목으로 진행된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금메달1, 은메달1)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한국의 e스포츠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KT와 KeSPA는 최근 급속히 확산중인 메타버스 시대 흐름에 맞춰 VR/AR 게임을 KeSPA가 주관하는 국내 e스포츠 대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PC 게임에서 시작된 e스포츠 종주국의 명성을 미래형 e스포츠에도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SKT는 KeSPA가 주관하는 주요 국내 e스포츠 대회의 중계권을 확보하고 메타버스 · 미디어 등 SKT의 핵심 ICT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e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KeSPA 역시 SKT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산업 저변을 지속 확대해 한국의 e스포츠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 30일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식에는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과를 이룬 국내 e스포츠의 발전에 SKT가 일익(一翼)을 담당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e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 첫 출전하는 e스포츠 국가대표팀이 SKT의 후원을 통해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SKT의 ICT 기술과 e스포츠가 만나 선보일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T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국내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 및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1, 3 -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우측)과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후원 계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2 - 좌측부터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 |

**▶ 관련문의 : SKT PR실 김동영 매니저 (02-6100-3817)**

 **한국e스포츠협회 정자랑 팀장 (02-737-3710)**

**<끝>**